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을유1945  
서체 가이드북

드루징카  
굿인도  
드루징카  
굿인도

을유문화사



을유문화사

5

을유1945 서체를 선보이며

7

책의 정신과 육신에 기여한 사람들 / 유지원

15

을유문화사 서체의 탄생 / 윤민구

19

자세히 보기

45

조판 보기

107

검수를 마치며 / 류양희

을유1945  
서체 가이드북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펴낸이. 정무영  
펴낸곳. (주)을유문화사  
디자인. 워크룸

창립일. 1945년 12월 1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9-48  
전화. 02-733-8153  
팩스. 02-732-9154  
홈페이지. [www.eulyoo.co.kr](http://www.eulyoo.co.kr)

# 을유1945 서체를 선보이며

을유1945는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을유문화사의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을 잇는 서체로  
출판사의 옛 책에서 수집한 한자 명조의 삼각형꼴 맺음을  
한글 해서 명조의 뼈대에 적용하여 새롭게 재해석한  
글자체입니다. 글자의 획을 매만지는 것에 머물지 않고,  
‘단순함이 곧 명쾌함’이라는 태도와 마음으로 도형의  
기본 요소인 수평·수직·대각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붓글씨가 주는 옛 느낌을 덜어 내어 과도기적 양식을 과감하게  
따르는 동시에 현대적 미감을 갖습니다.

## 일러두기

- \* 을유1945는 서체 사용자의 섞어 쓰기 편의를 위해 구글과 어도비가 제작하고 배포하는 오픈 라이선스(SIL OFL v.1.1) 서체 ‘본명조(Source Han Serif)’의 기본 한자 4,620자 및 가나 170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본 서체는 인쇄물 제작, 웹페이지, 영상물, CI/BI, 이북/이러닝, UI 디자인 등에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임베딩, 서버 및 디바이스 등을 이용한 수정, 변형, 복사, 대여, 임대, 재판매, 배포는 불가합니다.
- \* 책의 본문에 사용할 경우 표기 가능한 곳에 “이 책의 본문은 ‘을유1945’ 서체를 사용했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체 디자인	윤민구
제작 도움	김지은, 김대권
감수 도움	류양희
글자 수	한글 2,780자 세로쓰기용 한글 2,780자 라틴 알파벳 284자 한자 4,620자 가나 170자 숫자 및 기호활자 9,366자
사용 권장 OS	Windows XP 이상 Mac OS X 10.6 이상 메모리 1GB 이상 하드디스크 50MB
글꼴 포맷	OTF (WIN/MAC)
PDF 임베딩	인쇄용 PDF 임베딩 지원
출력 상한선	문자 해상도 1200dpi 컬러 이미지 200dpi
부가 정보	오토힌팅 비례 너비/고정 너비 유니코드

## 책의 정신과 육신에 기여한 사람들

유지원  
타이포그래피 연구자

### 1.

을유문화사에서 을유1945 서체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소식이었다. 종이 책 단행본의 발행처인 출판사가 본문 글자체 개발을 의뢰한 주체로 돌아온 것은 한국에서는 해방 후 극히 드문 사례가 아닌가?<sup>1</sup>

유럽과 한반도에서 각각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직후로 도서를 왕성하게 발행하기 시작한 15세기부터, 필사본 대신

1. 여기서 공간적으로는 ‘한국’, 시간적으로는 ‘해방 이후’, 인쇄물의 형식으로는 ‘단행본’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중 인쇄물의 형식은 크게 ‘신문’, ‘교과서’, ‘단행본’으로 시장이 나뉘고, 최근에는 전자책과 웹 등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생겨났다. 신문의 경우 19세기에 신식 납 활자 인쇄가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각 신문사에서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왔다. 교과서체도 자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인쇄 출판이 핵심 업무가 아닌 기업이나 공공 기관에서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폰트라고 해서 전용 서체를 개발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 경우는 긴 텍스트의 콘텐츠를 위한 본문 폰트의 기능성보다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국립한글박물관의 「국내 글꼴 산업의 현황 조사와 전망」 보고서(2019)에 따르면 2019년까지 개발이 완료되어 통용되는 무료 폰트 중에서 제공처가 텍스트 기반 콘텐츠 기관인 경우는 ‘리디북스’의 ‘리디바탕체’와 ‘네이버’의 ‘나눔글꼴’, ‘미래엔(구 대한교과서)’의 ‘대교체(교과서 글자체)’ 정도가 조사되어 있다. 그 밖에 단행본 종이책 출판의 주체가 본문용 전용 서체를 의뢰한 사례는 따로 보이지 않는다.

활자로 찍은 인쇄본이 활기를 띠면서 책이 품은 정신과 육신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 많은 사람이 기여해 왔다.

## 2.

“저분들이 없었다면 괴테도 실러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라이프치히국립도서관의 한 홀에 초청받아 들어섰을 때였다. 창문들 양옆으로 말발굽 형태로 둥글게 둘러서며 높이 솟은 책장들 위에는 당당한 초상화들이 걸려 있었다. 이 초상화들을 가리키며 일행을 인솔한 도서관 분과장이 한 말이었다. 초상화 속 인물들은 책의 도시 라이프치히가 자랑하는 출판인과 편집인들이었다. 같은 작센주의 주도이자 이웃인 드레스덴이 왕정 도시라면 라이프치히의 시민 도시였다. 이 도시에서 출판 편집인은 존경받는 지식인 계층의 시민이었고, 그들은 마치 이웃 도시의 왕과 성직자, 귀족들처럼 초상화 속에서 자신의 기품과 위엄을 드러내고 있었다.

18세기에 괴테는 법학을 공부하고자 프랑크푸르트로부터 옮겨 와서 라이프치히의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생이 된 괴테는 이 도시의 명망 있는 인사들과 교분을 가지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자서전인 『시와 진실(Dichtung und Wahrheit)』에서는 악보 출판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한 브라이트코프 가문과 인연을 맺은 일화가 등장한다. 리하르트 바그너가 젊은 니체를 처음 만난 것도 독일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브룩하우스출판사 대표의 응접실에서였다. 당시 출판

편집인들의 자택은 학자들과 문화 예술인들, 교양 있는 시민들이 교류하는 독일 지역 문화 활동의 허브 역할을 했고, 그들은 그 서재를 드나들면서 아름다운 책과 활자며 책에 실리는 판화 삽화를 향유하는 취향을 습득했다.

## 3.

이런 유럽의 출판 편집인들이 책의 역사를 써 내려 오면서 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도서의 출판에만 그치지 않았다. 책은 필사본에서 인쇄본으로 옮겨 가 대량 복제되며 많은 사람에게 퍼지면서, 라틴어가 아닌 유럽 각국어로 출판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유럽의 언어별 악센트 부호 등을 표준화한 것이 편집인들이었다. 문법을 정립한 것도 문법학자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또 오늘날 한국어의 국문까지 통용되는 따옴표나 세미콜론 같은 문장 부호를 비롯한 각종 표기 기호를 수 세기에 걸쳐 발전시켜 온 것도 이들 편집인들이 한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활자체 디자인을 지원해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말하자면 그들은 책과 텍스트에서 눈을 위한 그래픽적인 장치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통일하는 데에 공헌해 왔다. 15세기 중반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직후 인쇄물 출판은 16세기 유럽의 상업과 학문 중심지들로 빠르게 퍼져 나갔고, 바로 이 시기에 출판인들과 편집인들이 기틀을 잡은 구두법과 활자체<sup>2</sup> 디자인, 표제 및 본문 타이포그래피의

2. 글자는 크게 손으로 쓴 글씨와 기계를 필요로 하는 활자 및 폰트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시대 이전 금속 활자를 ‘활자’, 그 형태적 양식을 ‘활자체’, 그리고 디지털 시대 이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폰트’로 구분해서 사용했다.

기본 골격은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종이 책에서는 근본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은 양식으로 확립되었다.

#### 4.

유럽에서 책의 인쇄는 활자 주조와 수 세기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함께해 왔다. 활자 제작에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고 그만큼 활자도 고가였으며, 제작도 까다로운 데다가 전문 지식과 기술, 숙련된 미감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과 양식에 활자의 형태를 끊임없이 일치시켜 가야 했다. 이런 일은 대규모의 출판 인쇄 사업장에서나 감당할 수 있었다.

책과 인쇄의 역사를 이 짧은 글에 모두 요약할 수는 없으니 유럽의 가장 번성한 인쇄 사업장의 업무 양태를 대표로 소개하고자 한다. 그 한 군데만 꼽자면 단연 16~17세기를 품미한 안트베르펜의 플랑탱모레투스출판인쇄소를 들 수 있다. 지금은 플랑탱모레투스박물관(Plantin-Moretus Museum)으로 고스란히 잘 보존되어 있다. 장인인 크리스토퍼 플랑탱(Christopher Plantin)과 사위인 얀 모레투스 1세(Jan Moretus I), 그리고 그 후손들의 성을 따서 붙인 이름이다. 화가 루벤스는 3대 대표인 발타사르 모레투스 1세(Balthasar Moretus I)와 학창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서, 이 출판 인쇄소에서 찍은 책들을 위해 많은 삽화를 제작했고 특히 모레투스가 제안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루벤스가 표제 페이지용으로 만든 삽화는 바로크 도서의 새 양식을 창출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한다.

1550년경 안트베르펜은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번창했다. 프랑스 사람인 플랑탱은 야심차게 안트베르펜에 정착해 출판

인쇄소를 세웠다. 당시 안트베르펜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광대한 영토를 거느린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의 지배 아래 있었다.

플랑탱의 인쇄 사업장은 펠리페 2세의 신임을 얻어 스페인과 스페인의 식민지 전체에서 사실상 독점적으로 대량 인쇄된 종교 서적을 판매하는 권한을 획득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이곳은 유럽 최대 규모의 타이포그래피 사업체로 거듭났다.

이렇게 얻어진 막대한 부와 명성으로, 그는 잘 팔리지 않는 과학서 출간에도 힘을 쏟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활자체 디자인의 연구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폰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활자 제작자인 클로드 가라몽(Claude Garamond)의 고전적인 활자체 디자인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다. 16세기에 가라몽이 깎은 로만체 활자는 오늘날까지도 로마자 본문 텍스트에서 가장 가독성 높은 양식의 기틀이 되었다. 이후에는 19세기 산업 혁명을 지나 책뿐 아니라 광고와 여러 방면에 활자 인쇄가 적용되면서 활자 주조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리고 20세기 사진 식자 시대를 지나 디지털 폰트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폰트와 책의 제작 주체는 점차 분리되어 왔다.

#### 5.

한반도에서 금속 활자는 고려 시대에 발명되었지만,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야 금속 활자 인쇄와 출판이 체계화하며 본격적으로 서적이 쏟아졌다. 조선에서는 민간 인쇄소가 아닌 국가가 한자와 한글 금속 활자의 서적 인쇄를 주관하고 독점했다는 점이 유럽의 사정과는 크게 달랐다.

민간과 지방에서 목판본과 목활자 인쇄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도서 출판에 있어서만큼은 활자 인쇄가 글씨를 바로 대체한 유럽과 달리 한반도에서는 소설책 필사본도 20세기 초반까지 맥을 이어 왔다. 이런 역사를 모두 요약하기는 복잡하니, 금속 활자의 서적 인쇄와 관련해 세종 대의 주자소와 교서관을 대표적인 예로 들고자 한다.

주자소는 활자를 제작하는 관청이었고, 교서관은 교정을 보는 관청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주자소는 폰트 제작처이자 인쇄소, 교서관은 출판사의 편집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관직을 받은 공무원이었다. 발간하는 도서를 결정하는 것도 관이 주관하는 만큼 의뢰가 아니라 왕과 관리의 명령이었고, 따라서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 백성을 교화하려는 목적의 출간물이 대부분이었다. 주자소와 교서관, 두 기관은 서로 분리되었다 합쳐지기도 하고, 명칭이 바뀌기도 했으나 업무는 긴밀하게 연관되었다.

문화 의식이 높았던 왕들은 활자체의 기술적인 개선과 디자인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아, 세종대에는 조선 전기 금속 활자의 백미로 꼽히는 갑인자체(甲寅字體)가, 정조 대에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정리자체(整理字體)가 만들어졌다. 둘 다 한자 활자체였고, 아쉽게도 한글 활자체는 한자에 부수적으로 만들어진데다 모태가 되는 글씨를 쓴 사람이나 만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19세기에는 일본을 통해 서구식 납 활자가 유입되면서 동아시아의 전통식 구리 활자는 역사의 뒤편길로 물러난다. 금속 활자 인쇄의 메커니즘도 이때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방식을

이어 온 기술로 대체되어, 오늘날 우리가 컴퓨터와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글자를 다루는 환경은 한글을 쓰더라도 고려 직지의 방식이 아닌 구텐베르크의 방식을 따른다.

신식 납 활자가 유입된 초창기에는 서구의 선교사들이 이 기술을 통해 성경을 한국에 널리 알리고자 하여 한글 활자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는 사진 식자 기술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한국인 원도(原圖)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그렸더라도 한글 활자체를 만드는 기술은 일본에 의존하던 시기를 거쳐, 1984년에 이르러서야 민간 기업인 산돌커뮤니케이션에서 한국 기술로 한글 활자체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폰트 회사나 스튜디오, 폰트 디자이너 개인이 출판 등록을 해서 도서를 발간하는 일은 있으나, 역으로 도서 출간이 핵심 업무인 민간 단행본 출판사에서 폰트 디자인을 지원하는 일은 드물었다.

## 6.

을유문화사는 광복되던 해인 1945년 을유년에 창립했고, 이 이름에는 광복을 기억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35년의 일본 통치 아래 빼앗긴 한국의 문화·언어·문자를 돌려놓고, 그렇게 국문으로 인쇄된 책을 읽히기 위해 독자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부터 해야 하던 시기였다.

그래서였을까? 1946년에 발간된 첫 책은 여성 저자이자 서예가인 이각경이 한글 궁체의 글씨체로 쓴 『가정 글씨 체첩』이다. 한글 글자의 모양을 바로잡고 글씨를 연습하는 책으로 첫걸음을 디딘 것이다. 한글 활자가 제대로 구색 맞추어



갖춰진 인쇄소도 변변히 없던 환경인지라 분량이 많지 않은  
붓글씨 책이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이 아닌가도 싶다. 이어서 같은  
저자의 『어린이 글씨 체첩』이 출간되었다.

그다음 해인 1947년 한글날에는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큰사전』 전 6권 가운데 첫 권이 출간되었고, 전란을 지나  
11년만인 1957년에 전 권이 완간된다. 그리고 청록파 등의 한국  
현대시,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사전, 한국 역사 전체를 다룬  
『한국사』를 발간하는 등 한국 학술 문화와 교육 문화에 기여해  
왔다. 식민 통치 후 이어진 전란의 폐허 속에서 출판이 해야 할  
일이었다.

## 7.

을유1945 서체의 제작은 우리 책의 역사에서 책의 발행 주체가  
한때 오랜 사명이었다가 희미해진 활자체 개발 업무를 오랜만에야  
직접적으로 실천한 일이라고 기억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좋은 내용을 감각적으로도 좋은 목소리에 싣겠다는  
의지를, 글자 문화의 한 능동적인 주체로서 드러낸 것이다.

출판문화는 글자 문화의 발달과 늘 여러 방식으로 함께 해  
왔다. 을유문화사는 외부의 통치로부터 해방된 을유년을 기념하는  
이름을 여전히 간직하고, 사라져 가던 우리말과 우리 글,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에 양분과 생기를 채워 왔다. 이번에 또다시  
우리말과 글의 시각적 목소리인 글자체를 가다듬은 것은 출판이  
우리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온 한결같은  
행보이자, 출판의 소명과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발자취로 보인다.

## 을유문화사 서체의 탄생

윤민구

그래픽 겸 타입 디자이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 명조라고 부르는 글자체 양식은 붓으로  
쓴 한자 해서체 스타일에 더 가깝다. 이는 사실 잘못 붙여져  
굳어진 명칭으로, 실제 ‘명조’의 글자체 양식은 중국 한자와  
일본 가나 문자에서 흔히 보이는 획 대비가 강하고, 삼각형 모양  
맺음을 가진 글자체 양식을 의미한다. 현재 쓰이는 한글 글자체  
중에서 실제 명조와 유사한 글자체를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순명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1세대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는  
명조라는 명칭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남겼다.

특히 최정호는 명조체라는 명칭이 잘못되었음을 여러 번  
강조했다. 명조체 대신 세해서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사실 명조체는 중국 명나라 시대에 유행한 한문 서체인데,  
내가 쓴 이 한글에 왜 명조체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었으면 한다.”

— 「최정호, 꾸밈, 1978」,

『한글 디자이너 최정호』, 안그라픽스

을유문화사로부터 ‘새로운 본문용 명조’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명조라는 글자체를 새로 그리기 위한 여정을 준비하면서 빙빙 돌아가지 않고, 가장 쉽고 빠른 길로 가고 싶었다. 진짜 명조체는 어떤 모양인가. 해서체 양식을 따르는 본문용 한글 명조체가 익숙한 독자에게 어떤 디자인의 새로운 명조를 제안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거듭하던 중, 을유문화사에서 보관 중인 고서들을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순명조 혹은 한자 명조 레터링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나는 글자의 키(key)-형태를 삼각형으로 정했고 ‘을유1945 서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을유1945 서체의 첫 모습은 기존의 명조체에 비해 개성이 매우 강한 인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썩 맘에 들었지만,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를 다루는 출판사의 전용 글자체가 지녀야 할 보편성과 범용성 또한 고민해야 했다. 과격한 인상의 새로운 글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의 본문을 대체하면, 낯설게 느끼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독자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 명조의 삼각형 맺음을 이용하되, 기존 명조체와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 (독자에게 익숙한) 해서체 구조를 따르는 과도기적 명조를 제안했다. 동시에 이 과도기적 글자의 인상은 옛것에서 발견한 가치를 다듬어 새롭게 제안하는 을유문화사의 법고창신 정신과도 결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새로움은 곧 익숙해질 것이며, 익숙해진 것에서 다시 새로움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을유문화사, 워크룸 그리고 내가 공감한 가치다.

이후 디자인은 최대한 가든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진행했다. 단순함이 곧 명쾌함으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했다. 도형의 기본 요소인 수평·수직·대각선을 이용하고, 기존 명조체들이 가진 붓의 느낌을 최대한 덜어 냈다. 본문용 글자체이지만 크게 써도 현대적인 미감과 디테일이 드러나도록 했다. 그리고 디자인과는 별개로 글자를 읽어 가는 독자를 넘어, 글자를 다루는 편집 디자이너를 위한 글자체가 무엇인지 워크룸의 김형진 디자이너와 의논하고 고민했다. 언어 설정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문장 부호, 더 많아진 원/괄호 기호, 다양한 디자인의 낫표, 빈번하게 쓰이는 특수 글리프와 편의를 위한 임의 합자, 세로쓰기 글줄에 맞춘 한글 추가 세트, 손쉽게 변경되는 고리점과 모점, 을유문화사의 고서 편집에서 자주 쓰인 몇 가지 추가 심벌 등 사소하지만 알고 있으면 편리한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내가 생각하는 글자체 디자인은 프로덕트 디자인(product design)에 더 가깝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제품이어도 쓰이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글자체 또한 결국에는 쓰임을 통해서만이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고 믿는다. 을유1945 서체 역시 다양한 디자이너의 손에 쓰이고, 여러 독자에게 읽히며, 글자를 대하는 수많은 시선을 통해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잘’ 살아가는 글자체가 되길 바란다.

자세히 보기

한글  
Alphabet  
漢字  
ひらがな  
カタカナ  
123

한글  
Alphabet  
漢字  
ひらがな  
カタカナ  
123

드라지개  
맞은고

드라지개  
맞은고

8 을유문화사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연륜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지평을 넓히고, 앞으로도 지성의 벼로서 독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사회와 문화 발전

10 을유문화사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연륜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앞으로도 지성의 벼로서 독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더

15 을유문화사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연륜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앞으로도 지성의 벼로서

24 을유문화사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연륜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8 을유문화사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연륜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지평을 넓히고, 앞으로도 지성의 벼로서 독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대의 사회와 문화 발전

10 을유문화사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연륜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앞으로도 지성의 벼로서 독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더

15 을유문화사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연륜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지평을 넓히고, 앞으로도 지성의 벼로서

24 을유문화사는 지금까지 쌓아 온 연륜을 기반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한국어/영어에 각각 맞는 문장 부호와 띄어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창 > 언어)

‘dilettante?’: “connoisseur!”  
Baby-boomers... «taste»



‘애호가?’는: “감정가!”이다.  
베이비-붐 세대... «취향»

세로쓰기용 글리프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문자 > 쓰기 방향 > 세로)

세로쓰기용 글리프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문자 > 쓰기 방향 > 세로)



이들이 선거 구호로 앞세운 보통  
사람에서 보통이,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그들의 보통 사람이란,  
일인당 소득 오천달러 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고교 평준화 베이비 붐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팔십년대의 중산층  
개념을 업그레이드한 결과였으며,  
따라서, 중산층의 삶을 욕망하는

→

이들이 선거 구호로 앞세운 보통  
사람에서 보통이, 평균값 최빈값  
중앙값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는 않았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했다. 그들의 보통 사람이란,  
일인당 소득 오천달러 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고교 평준화 베이비 붐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팔십년대의 중산층  
개념을 업그레이드한 결과였으며,  
따라서, 중산층의 삶을 욕망하는



다양한 대체 글리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창 > 옵션 > Open Type > 스타일 세트 On/Off)

## Alternative Punctuation Marks

각진 형태로 디자인된 대체 문장 부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Long Tailed Q

대문자 Q를 긴 꼬리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rightarrow Q$

Single Story: a, g, y

소문자 a, g, y를 이탤릭형 대체 디자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g y  $\rightarrow$  a g y

## Alternative @ sign

소문자 a 꼴로 디자인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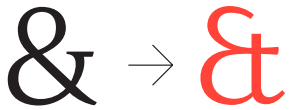
@ → @

대문자 글줄에 맞는 @기호를 추가했습니다.

I@a@a

#### Alternative Ampersand

다른 디자인의 앰퍼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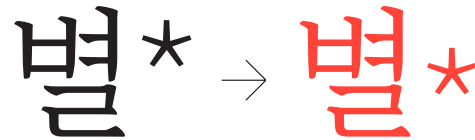
#### Alternative Eszett: ß

각진 디자인의 대문자 에스체트(ß)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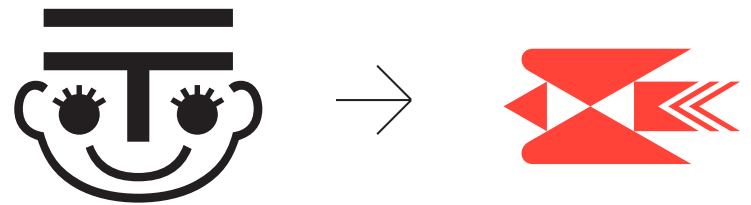
#### Center Asterisk: \*

한글의 중심에 맞는 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Korean Swallow Postmark

한국에서 쓰이는 제비 우편 기호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lf-circle Parentheses: ( )

둥근 반원 괄호 디자인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rac{\text{ㄱ}}{\text{ㅏ}}$ )  $\rightarrow$  ( $\frac{\text{ㄱ}}{\text{ㅏ}}$ )

Alternative Corner Brackets / White Corner Brackets 1, 2

다양한 디자인의 낫표, 겹낫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diagram illustrating a transformation. On the left, there is a single vertical line. An arrow points to the right, where the line is shown as a complex, multi-segmented structure, possibly representing a path or a sequence of steps.

Double Size Horizontal Bar: —

두 배 길이의 줄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frac{\text{위}}{\text{아}}$  —  $\rightarrow$   $\frac{\text{위}}{\text{아}}$  —

## Vertical writing Period and Comma

마침표와 쉼표를 고리점과 모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용해지는 데,  
따르는 위험。  
떠안지 않은 채,  
유용해 보이려는  
미술의 욕구。

→

유용해지는 데,  
따르는 위험。  
떠안지 않은 채,  
유용해 보이려는  
미술의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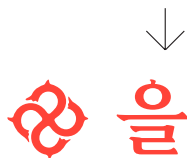
“더욱 큰 따옴표”

음유



을유문화사

☎ 을유문화사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ㆆ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 ☯ ☶ ☵ ☳ ☲ ☱ ☰ ♀ ♂ ☯ ✎ ♻ 井

★★ © ® ℙ SM TEL TM ☸ 을유문화사

ENGLISH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PORTUGUESE

A Assembléia Geral proclama a presente Declaração Universal dos Direitos Humanos como ideal comum a atingir por todos os povos e todas as nações, a fim de que todos os indivíduos e todos os órgãos da sociedade, tendo-a constantemente no espírito, se esforcem, pelo ensino e pela educação,

GERMAN

Verkündet die Generalversammlung diese Allgemeine Erklärung der Menschenrechte als das von allen Völkern und Nationen zu erreichende gemeinsame Ideal, damit jeder einzelne und alle Organe der Gesellschaft sich diese Erklärung stets gegenwärtig halten und sich bemühen, durch Unterricht

FRENCH

L'Assemblée générale proclame la présente Déclaration universelle des droits de l'homme comme l'idéal commun à atteindre par tous les peuples et toutes les nations afin que tous les individus et tous les organes de la société, ayant cette Déclaration constamment à l'esprit, s'efforcent,

ITALIAN

L'Assemblea Generale proclama la presente dichiarazione universale dei diritti umani come ideale comune da raggiungersi da tutti i popoli e da tutte le Nazioni, al fine che ogni individuo ed ogni organo della società, avendo costantemente presente questa Dichiarazione, si sforzi di promuovere,

DUTCH

Op grond daarvan proclameert de Algemene Vergadering deze Universele Verklaring van de Rechten van de Mens als het gemeenschappelijk door alle volkeren en alle naties te bereiken ideaal, opdat ieder individu en elk orgaan van de gemeenschap, met deze verklaring voortdurend voor ogen, er

SPANISH

La Asamblea General proclama la presente Declaración Universal de Derechos Humanos como ideal común por el que todos los pueblos y naciones deben esforzarse, a fin de que tanto los individuos como las instituciones, inspirándose constantemente en ella, promuevan, mediante la enseñanza y

LATIN

Universalis de hominis juribus declaratio. Omnes homines liberi aequique dignitate atque juribus nascuntur. Ratione conscientiaque praediti sunt et alii erga alios cum fraternitate se gere debent. Quisque potest sibi assumere libertates omnes omnesque jures in hac declaratione pronuntiatos, sine

POLISH

Ogásza Uroczyscie niniejsz Powszechn Deklaracj Praw Czowieka jako wspólny najwyższy cel wszystkich ludów i wszystkich narodów, aby wszyscy ludzie i wszystkie organy społeczeństwa - mając stale w pamięci niniejsz Deklaracj - dążyć w drodze nauczania i wychowywania do rozwijania po-

SWEDISH

Generalförsamlingen denna allmänna förklaring om de mänskliga rättigheterna såsom en gemensam riktlinje för alla folk och alla nationer, på det att varje individ och varje samhällsorgan må med denna förklaring i åtanke ständigt sträva efter att genom undervisning och uppfostran befordra

SAMI(LAPP)

Oaivečoahkkinn dákká bokte almmoha dán olmmošvuoigatvuotdaidd oppamáilmmálaš julggaštusa oktasaš joksannearrin buot álbmogiidda ja buot náššuvnnaide vai juohke olmmošoktagas ja juohke servodateiseváldi, álo muittus anedettiin dán julggaštusa, vikkašii oahpahusa ja ba-

CZECH

Všeobecnou deklaraci lidských práv jakožto společný cíl pro všechny národy a všechny státy za tím účelem, aby se každý jednotlivec a každý orgán společnosti, máje tuto deklaraci stále na mysli, snažil vyučováním a výchovou rozšířit úctu k těmto právům a svobodám azajistit pos-

DANISH

Plenarforsamlingen derfor nu denne verdenserklæring om menneskerettighederne som et fælles mål for alle folk og alle nationer med det formål, at ethvert menneske og ethvert samfundssorgan stedse med denne erklæring for øje skal stræbe efter gennem undervisning og opdragelse at fre-

NORWEGIAN

Nå denne verdenserklæring om menneskerettighetene som et felles mål for alle folk og alle nasjoner, for at hvert individ og hver samfunnsmyndighet, med denne erklæring stadig i tankene, skal søke gjennom undervisning og oppdragelse å fremme respekt for disse rettigheter og friheter, og ved

SLOVAK

Valné shromaždenie túto všeobecnú deklaráciu ľudských práv ako spoločný cieľ pre všetky národy a všetky štáty, aby sa každý jednotlivec a každý orgán spoločnosti, majúci túto deklaráciu stále na mysli, snažil vyučovaním a výchovou rozšíri úctu k týmto právam a slobodám a zaisti pos-

FINNISH

Niin sen vuoksi yleiskokous antaa tämän ihmisoikeuksien yleismaailmallisen julistuksen kaikkien kansojen ja kaikkien kansakuntien tavoiteltavaksi yhteiseksi ohjeeksi, jotta kukin yksilö ja kukin yhteiskuntaelin pyrkisi, pitäen alati mielessään tämän julistuksen, valistamalla ja opettamal-

ICELANDIC

Fyrir því hefur allsherjarþing Saminuðu þjóðanna fallið á mannréttindayfirlýsingu þá, sem hér með er birt öllum þjóðum og ríkjum til fyrirmyndar. Skulu einstaklingar og yfirvöld jafnan hafa yfirlýsingu þessa í huga og kappkosta með fræðslu og uppeldi að efla virðingu fyrir réttin-

SLOVENIAN

Generalna skupščina razglasa to splošno deklaracijo človekovih pravic kot skupen ideal vseh ljudstev in vseh narodov z namenom, da bi vsi organi družbe in vsi posamezniki, vedno v skladu s to deklaracijo, pri pouku in vzgoji razvijali spoštovanje do teh pravic in svoboščin ter s postopnimi

조판 보기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슬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리처드 도킨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슬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1976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의 로저스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정성을 다해 준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북돋워 주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슬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슬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章을 완전히 다<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 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추가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전서는 다채 주 오스핀드 대학교 출판부의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장章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나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주어 나를 복돋워 주었다. 마지막으로 초고에<대한 비평뿐 아니라 이 책이 추가되기까지 모든 문제에 전서는 다채 주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첫째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에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에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즐겁게 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에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에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첫째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국한된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에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에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등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국한된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에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그레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토퍼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무관>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장을 완전히 다<시>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자>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e>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v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무>관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자>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국한된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에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에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이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슬러, 닉 브러터, 조스(Nick Burt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국한된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에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에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이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슬러, 닉 브러터, 조스(Nick Burt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만 아니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후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 등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팻 설(Pat Searle)과 스테파니 버호벤(Stephanie Verhoeven)은 능숙하게 타자를 쳐 주었을 뿐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를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 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 그레이엄(Christopher Graham), 제프 파커(Geoff Parker), 트리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 ‘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를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 ‘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크리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 ‘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를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 ‘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를 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  
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  
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  
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  
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  
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  
을 전한다].

특저 자에 대해 거센전이 비판과 그 바에 저무저이 츠고르 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저 자에 대해 거센전이 비판과 그 바에 저무저이 츠고르 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도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도 아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틀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리(Nick Humphrey), 클러턴-브록, 루이즈 존슨(Louise Johnson),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까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트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까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턴 존스(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트웰(Sarah Kettlewell), 닉 험프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충고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 거센저이 비판한 그 바에 전문적인 초...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 거센저이 비판한 그 바에 전문적인 초...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맛을 전하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하거나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몬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맛을 전하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기술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 중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한 기술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간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고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렙스(John Krebs), ‘유전자 기계’는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거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Baptiste Lamarck)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튼(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트웰(Sarah Kettlewell)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첫 번째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거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Baptiste Lamarck)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았던 메이너드 스미스, 모리스, 마술러, 닉 블러튼(Nick Blurton Jones), 사라 케트웰(Sarah Kettlewell)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거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Louis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거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Louis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장에 대해 건설적인 비평과 그 밖에 전문적인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Louis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 작성된 비판과 그 밖에 전문적인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Louis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말을 전한다].

특정 주제에 대해 작성된 비판과 그 밖에 전문적인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거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Louis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 ‘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만수 전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거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Louis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 ‘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티븐 포터(Stephen Potter)에게는 사과의 만수 전한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R. A.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표를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하고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동’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 방식’은 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R. A. Dawkins)가 제안한 것이었다[‘유전자의 행동 방식’에 대해 스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거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진’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내가 이 글을 쓰는 동안 세 부류의 독자가 내 집필을 지켜보았다. 이제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세 부류의 독자는 생물학에 문외한인 일반 독자다. 이들을 위해 가능한 전문적인 특수 용어 사용을 피했고,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곳에는 그 용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밝혔다.

두 번째 가상 독자는 전문가다. 이들은 나의 비유에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이 좋아하는 문구는 “~은 예외로 하거나 한편으로는”, “우! [혐오·경멸·공포 따위를 나타냄 — 옮긴이]”이다. 나는 이들의 비판을 주의 깊게 들었고, 심지어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한 장장을 완전히 다시 썼다.

내가 생각한 세 번째 독자는 일반 독자에서 전문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학생이다. 아직도 자신의 전공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나는 내 전공 분야인 동물학을 고려해 보라고 권한다.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이 될 만한 문구를 제안했다. 나는 그것을 감사히 장 제목으로 사용했다. 그 제목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불멸의 코일’은 존 크랩스(John Krebs), ‘유전자의 행진’은 데스먼드 모리스(Desmond Morris), ‘유전자의 행동’은 클러턴-브록(Tim Clutton-Brock)과 진 도킨스(Jean

류양희

서체 디자이너

글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반복되는 검수와 수정의 과정이다.

초기 스케치 단계에서는 디자인 콘셉트와 사용 목적에 맞추어 샘플 글자를 설계한다. 이때 형태(획의 모양, 대비, 각도, 자소의 모양, 날글자의 모양)와 구조(글자 비율, 무게 중심, 시각 흐름선)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한글의 경우 계획대로 글자가 쉽게 파생되지는 않는다. 모임 꼴별로나 혹은 날자소의 모양에 따라 각 글자의 밀도가 다르고, 윤곽을 이루는 형태가 다르며, 좌우 어떤 글자 사이에 놓이는가에 따라 서로 시각적 영향을 주어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을 계속 마주하기 때문이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장으로 글자가 사용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글자체 디자이너는 하나의 글자를 그리는 도중에도 머릿속에 여러 가지의 축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예를 들어 ‘마’라는 글자를 그리면서, 같은 모임 꼴인 ‘가, 나, 다, 라……’를 생각하고, ㅁ을 닿자로 하면서 받침이 있는 글자인 ‘막, 만……’과 비교하면서, 세로 모임 꼴인 ‘모’와 글줄의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고, 밀도가 다른 ‘매, 뿔’과 나란히 두었을 때 글자 너비나



농도가 어떤지 확인해 가는 식이다.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 자체가 검수와 수정의 반복이다.

스케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글자를 파생해 나가지만, 다 완성된 이후에는 또다시 검수와 수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 2,350자(혹은 2,780자)에서 11,172자를 만들면서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이나 예외의 상황 역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낱글자가 완성되면, 판짜기를 하여 문장의 상태를 확인한다. 이때는 한글의 문장 생활에 필요한 라틴 문자, 숫자, 문장 부호, 기호들과의 어울림을 보고 문장 상태에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글자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문장으로 배열되고, 목적에 맞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글자체 디자이너의 목표다. 그래서 한 벌의 활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한 글자를 완성도 있게 그려 내거나 특정한 단어에 개성을 입히는 레터링과는 아주 다른 일이다.

을유1945 서체의 리뷰는 ‘글자 모양’과 ‘문장 짜임’의 측면에서 진행했다. 글자 모양은 라틴, 숫자, 문장 부호, 기호, 한글을 각각 살펴보았다. 획의 모양과 움직임, 글자 크기, 비례, 공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견과 질문을 적었고, 몇몇 글리프의 추가를 제안했다. 공간 배분에 대한 의견은 글꼴 개발 프로그램에서 크게 확대한 상태에서 발견한 부분을 다시 작은 사이즈의 글씨로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출력물을 보며 의견을 적었다.

문장 짜임은 텍스트 컬러와 농도를 살피고 라틴, 숫자, 문장 부호와의 어울림을 살펴보았다. 문장을 조판했을 때의

인상과 읽어 내려갈 때의 리듬을 고려하여 의견을 적었다. 레이저 프린터 출력, PDF 화면, 웹페이지 업로드를 통해 문장을 살펴보았는데, 웹페이지는 라틴 서체를 검수하기 위한 사이트여서 글줄 사이가 좁아 한글을 검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PDF 파일은 맥북 프로 화면과 아이폰 7으로 확인했다.

리뷰자의 의견이 디자이너의 의견과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서체의 사용 목적과 디자인 콘셉트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디자이너의 개성과 미감 때문일수도 있다. 디자이너는 다양한 사람의 리뷰를 참고로 하여 또다시 검수와 수정을 거쳐 한 벌의 활자를 완성할 것이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활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몇 단계가 남아 있다. 완성된 글자체를 독자에게 최적의 상태로 전달하도록 디자인하는 타이포그래퍼의 역량과, 보기 좋게 문장으로 구현된 글자들을 수십 장, 수백 장 읽어 가는 독자의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한 벌의 활자가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디자이너로서, 사용자로서, 독자로서 각자의 경험이 축적되고 피드백되어 또다시 검수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좋은 활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회 구성원에게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짐으로써 글자체는 비로소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유지원

글자와 책을 좋아하는 타이포그래피 연구자. 서울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독일국제학술교류처의 예술 장학생으로 독일 라이프치히 그래픽서적예술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했다. 2013년 국제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 타이포 잔치의 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 전공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 『글자 풍경』,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와 공저한 『뉴턴의 아틀리에』가 있다.

윤민구

그래픽 겸 타입 디자이너로 스위스 로잔예술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글과 라틴 알파벳을 함께 디자인하는 바이 스크립트 타입 디자인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안그라픽스 타이포그래피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홍익대학교에서 타입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류양희

서체 디자이너로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영국 레딩대학교에서 타입 디자인 MA 과정을 마쳤다. 고운한글 시리즈와 동글한글 시리즈를 발표했고, 아리따부리 개발 프로젝트에 디자이너로 참여한 바 있다.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ed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꽃) (꽃)

a g y

a g y

‘dilettante?’: “connoisseur  
Baby-boomers... «taste

‘애호가?’는: “감정가!” 이  
베이비-붐 세대... «취향

s  
man  
r  
all na-  
ridual  
ing  
ind,  
cation

을유1945 서체의 제작은 우리 책의 역사에서 책의  
발행 주체가 한때 오랜 사명이었다가 희미해진  
활자체 개발 업무를 오랜만에야 직접적으로  
실천한 일이라고 기억될 것 같다. — 유지원

• “ ” “ ” • “ ” “ ”  
• ” ” • ” ”

을유1945 서체 역시 다양한 디자이너의 손에  
쓰이고, 여러 독자에게 읽히며, 글자를 대하는  
수많은 시선을 통해 점점 완성되어 가는, ‘잘’  
살아가는 글자체가 되길 바란다. — 윤민구

Verkündet die Generalversammlung  
diese Allgemeine Erklärung der Men-  
schenrechte als das von allen Völkern  
und Nationen zu erreichende gemeins-  
ame Ideal, damit jeder einzelne und  
alle Organe der Gesellschaft sich diese  
Erklärung stets gegenwärtig halten  
und sich bemühen, durch Unterricht

한 벌의 활자가 사회에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디자이너로서, 사용자로서,  
독자로서 각자의 경험이 축적되고 피드백되어  
또다시 검수하고 수정하고 발전시켜야, 좋은  
활자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류양희

& Q